

6·2 지방선거 된다 **해남군**

김충식 재선 도전에 자천타천 6명 각축전

■ 해남군수 입지자

해남군수 선거는 지난 2002년 이후 올해 까지 5번째 치러지게 된다.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던 민주당 민화식 전 군수가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으나 2004년 열린 전남도지사 보궐선거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군수선거가 다시 치러졌다. 이 보궐선거에서는 당시 도의원 출신으로 새천년민주당의 박희현 전 군수가 도지사 선거 실패 후 다시 군수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민 전 군수와 접전을 펼치며, 1천500여표 차로 당선됐다.

2년 후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도 박 전 군수는 무소속 민 전 군수와 다시 맞붙어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박 전 군수는 인사와 공사비리 1년여만에 구속되면서 2007년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보궐선거가 또 치러졌다. 이 때 김충식 군수는 통합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원)민주당의 정두채 후보와 무소속 이석재 후보를 물리치고 승리했다.

그리고 올 6·2 지방선거에서는 김충식 군수의 재선 도전에 맞서 김항욱 (주)자연환경 대표, 박상일 해남군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해남군수 입지자



(가나다 순)
김충식(59) 민주당 해남군수, 김항욱(60) (주)자연환경 대표, 민인기(58) 해남자활센터관장, 박상일(52)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윤목현(54) 전 무등일보 주필, 이석재(64) 전 전남도 부의장, 이종효(60) 전 해남군 기초복지과장

윤목현 전 무등일보 주필, 이석재 전 전남도 의회 부의장, 이종효 전 해남군 가족복지과장 등 5명의 후보가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여기에 민상금 전 한국토지공사 감사와 민인기 해남지역 자활센터장 등 2명의 출마가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충식 군수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연이은 선거로 나타난 해남군민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이루는 조정자 역할을 무난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선거법 위반 사건도 별 탈없이 마무리돼 경쟁자들이 힘겨워 하는 형국이다. 김 군수는 특히 친환경농수산물업을 성공적으로 가꾸고 동부권의 쌀, 서부

권의 겨울배추, 중부권의 고구마, 남부권의 마늘 등의 브랜드화·가공·유통에 힘써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성공적으로 창출했다. 또 스포츠 마케팅에도 힘써 매년 1만여명의 체육인이 해남을 다녀가도록 했으며 차별화된 관광정책으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명문고 육성사업과 고구려 대학 캠퍼스 유치 등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김 군수의 최대 경쟁자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2천600여표 차로 아쉬운 패배를 했던 이석재 전 부의장. 그는 “희망의 땅 해남을 으뜸군으로 만들겠다”며 설욕의 각오를 다졌다. 4~6대 3선 전남도의회원으로 6대 때는

도청 사퇴하고 무소속으로 총선에도 도전한 바 있는 이 전 부의장은 인사와 공사의 투명성 보장 및 10가지 농수산물 전국 최고 상품화 등을 약속하며 군민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 전 부의장은 민주당 경선 참여를 선언했지만 사정의 여의치 않을 경우 무소속 출마를 결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해남 정가의 관측이다.

김항욱 대표는 언론인 출신으로 지난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 공천을 받아 군수직에 도전했으나 당시 무소속 민화식 후보에게 아쉽게 패배했고 이후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등에 꾸준히 공천 경쟁에 뛰어들이었으나 간발의 차이로 탈락하는 아픔을 겪었다. 그는 “많은 자

2002년 이후 올해까지 군수 선거만 5번째

후보마다 “부정부패 낙인 씻겠다” 한목소리

원에도 불구하고, 해남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나약한 리더십과 현실에 안주하는 관행적 행정권의 때문이라고 진단한 뒤 “매주 월요일이면 중앙부처와 서울 등 경향 각지로 출근하고 금요일에 해남으로 퇴근하는 세일즈맨 군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윤목현 전 주필은 지난 2007년 12월 보궐선거와 2008년 총선 공천경쟁에서 실패한 뒤 이번에 세번째 도전장을 던졌다. 그는 “해남은 각종 비리와 잦은 선거 때문에 지방자치 실패군으로 낙인찍혔다”며 “올해는 광주환경 30주년이고 단체장 직선 15년째로 민주당에는 개혁적 후보가 필요하며 해남을 과감하게 변하게 하기 위해서도 개혁성이 있는 젊은 외부인의 수월이 필요하다”고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이종효 전 과장은 34년여 동안 해남군 등에서 공직생활을 한 경험을 기반으로 이번 해남 출마표를 던졌다. ‘신뢰받는 군정’ ‘깨끗한 군정’을 강조하는 이 전 과장은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직부정이 얼마나 지역발전에 지해를 주는지 뼈저리게 느꼈다”며 “새로운 공직자상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박상일 해남군지역혁신협의회 의장은 30여년 동안 농촌살리기 운동에 매진한 지역

혁신 전문가.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가치 중심의 인맥과 조직으로 도전장을 던졌다. 박 의장은 “해남은 그동안 관치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해 다른 지역에 뒤처지고 있다”며 “수많은 농촌살리기 사업을 기획한 역량과 경험을 곁들여 해남을 위해 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앙당에서 30~40년간 몸담으면서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한 민상금 전 감사는 타천으로 후보에 거론되고 있으나 선거와 관련된 외부 활동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민인기 센터장도 YMCA총무 등 사회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군수선거에 도전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나 아직까지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하지 않은 상태다.

김 군수의 가장 큰 경쟁자로 손꼽혀온 재선의 김석원 전남도의회원은 지난 2일 “해남의 더 큰 발전과 군민 화합을 위한 작은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으며 박철환 해남군의회 부의장과 오길록 전 새정치국민회의 종합민원실장 등도 최근 출마 의사를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 쟁점 & 변수

군수 입지자 모두 민주당 경선을 참여한 때문에 이번 해남군수 선거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민주당 현역 지역위원장인 김영록 의원의 의중이다.

물론 경선을 거쳐 공천자가 결정되겠지만 김 의원이 대의원과 당원의 대부분을 자신을 중심으로 재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김 의원의 생각이 경선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공정한 경선과 개입 배제를 공언하고 있지만 해남 출신이 아닌 김 의원이 재선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다음 총선에서 자신을 위해 뛰어줄 인사가 절실할 요구되고 있다. 문제는 가장 큰 조직과 지지도를 갖고 있는 현 김충식 군수가 체일병 전 의원의 강력한 천거로 공천장을 받았다는 점.

또 김 군수의 가장 강력한 도전자인 이석재 전 도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김 의원을 도왔으나 잦은 당 이탈 경력으로 공천심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 김 의원의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다. 결국 김 의원이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검토한 후 최종 결단

- ① 김영록 국회의원의 선택은
- ② 체일병-민화식-김석원 ‘역학구도’ <전 국회의원> <전 군수> <현 도의원>
- ③ 각종 비리사건, 표심에 어떤 영향

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년 전까지 해남군 정치 조직을 양분해온 고 이정일 국회의원과 민화식 전 군수 조직의 선택도 선거 판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전 의원의 조직은 김석원 도의원의 영향력 아래 향후 정치 구도를 바가며 최종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 총선에서 진도의 이정일 전 의원 조직은 김영록 의원을 도왔지만 해남의 조직은 중립을 지킨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김석원 도의원이 2012년 총선 출마를 검토하며 주변 인사들을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현직 국회의원·군수·도의원 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 전 군수 조직은 여러 갈래로 나눠진 채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하지만, 두 조직 모두 결집력이 약해져 변수로 작용하기에는 무리라는 분석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또 지난 2003년 공동화서 구입 비리와 복지급여 횡령 비리 등도 선거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공교롭게도 수년 전에 저질러졌던 공직자 비리가 현 김충식 군수 시절에 모두 터져 나오면서 공직자 비리 타파를 후보다 주장하고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군수 재임 기간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 도의원 입지자

해남군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2개 선거구에서 각 1명씩 전남도의회원을 뽑는다.

그런데 2선거구의 김병욱 전 도의원이 지난해 10월 의원직을 상실한데다 1선거구 김석원 의원의 원마져 지난해 도의원 불출마를 선언, 무주공산의 두 자리를 놓고 모두 9명이 출마를 선언했다.

1선거구(해남읍, 마산·황산·산이·문내·화원면)에서는 김중분 해남군의원, 김중현(58) 재경 황산면 향우회장, 명현관(47) 해남군체육회 상임부회장, 장승영(53) 해남군 재향군인회장 등 4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전남도의원(비례대표) 출신인 김중분 군의원(비례대표)은 본래의 자리로 복귀를 꿈꾸고 있다. 도의원과 군의원을 모두 경험했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해남에서 경제인으로서 비교적 성공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명현관 상임부회장은 체육회 활동 등 폭 넓은 지역활동을 기반으로 선거 첫 도전에 나섰다.

자영업에 하며 사회복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온 장승영 재향군인회장은 소외계층의 복지 지원, 학생 무료 급식, 쌀 지원 대책 등을 위해 도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서울에서 사업을 하며 20여년 동안 향우회 활동을 해온 김중현 향우회장은 황산중 설립자이자 2~3대 김저기 전남도원의 차남이다. “잘

2개 선거구 모두 ‘무주공산’ 전·현직 군의원 등 9명 출마

■ 도의원 입지자

선거구	이름	경력
1	김중분(만·52)	해남군의원
	김중현(만·58)	재경 황산면 향우회장
	명현관(만·47)	해남군체육회 상임부회장
	장승영(만·53)	해남군 재향군인회장
2	김수현(만·44)	(주)해북대표
	김완석(만·57)	성주환경개발 대표
	김창환(만·60)	해남군의회 의장
	김효남(만·57)	해남군 수협조합장
	박종빈(만·60)	전 해남군 수산과장

사는 해남, 건강한 해남, 찾아오는 해남’을 모토로 출마표를 던졌다.

2선거구(삼산·화산·현산·송지·북평·북일·옥천·계곡면)에는 김수현(44) (주)해북 대표, 김완석(57) 성주환경개발 대표, 김창환(60) 해남군의회 의장, 김효남(57) 해남군 수협조합장, 박종빈(60) 전 해남군 수산과장 등 5명이 뛰어올랐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수현 대표는 영농법인을 일구며 10여년간 연구해온 친환경기능성 농수산물을 보급해 농어의 고수익을 창출하

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해남군축구협회장과 해남군체육회 사무국장을 역임한 김수현 대표는 군의원보다는 도의원이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권유를 받아 출마를 결심했다. 경제인의 경험을 살려 지역의 부를 확장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다.

김창환 의장은 “20여년의 공직생활과 4년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지역발전에 봉사하기 위해 해남의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며 “농어민 소득 증대, 향토문화 계승, 두류산 도립공원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효남 조합장은 “수협을 운영하면서 조합원의 어려움을 몸소 겪었다”며 “2선거구의 3개면이 바다를 끼고 있어 수산물이 풍부해야 한다”고 표심을 파고 들고 있다.

지난해 8월 퇴임한 박종빈 전 과장은 “수산업 분야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지역발전에 활용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 Z2006-1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무등산 문민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때가 벗겨진 묘, 동철기를 거머쥐고 봉건묘, 개인이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 의식 및 친족, 이웃 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상을 해본 사람들은 봉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정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민정사 주지 합장

근대대학교조종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예약 및 문의 062)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지도사 자격증 취득]

스피치, 연설, 리더십, 설득력 향상과정

(지방선거 출마자 선거연설 집중훈련)

- 1 교육목표: 대중 및 상대에게 감명과 감동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스피치 교육을 통해 리더 및 지도자로서 품위를 갖게 하는데 있음.
- 2 모집인원: 50명 선착순
* 지원대상: 직장인, 일반인, 주부, 기업체 및 학생, 말을 잘 하고 싶은 사람
- 3 강의요일 및 시간
* 야간(매주 금요일) 19:00~21:00
- 4 교육기간: 2010년 3월 6일 ~ 6월 25일
* 교육요령: 실습위주교육(실습 70%, 이론 30%)
- 5 교육과정: 대화 및 연설기법, 발표력, 남 앞에서 두려움없이 말하기, 각종 행사 사회 진행 요령 및 연설문 낭독 요령, 각종 원고 작성요령, 리더 및 지도자로서의 품위 향상 교육, 지방선거 공식선거 출마 연설문 작성 및 지도
- 6 원서교부 및 등록기간
* 등록기간: 2010년 1월 25일(월) ~ 3월 3일(수)
* 등록시간: 월 ~ 금(오전 10시 ~ 오후 5시)
* 등록장소: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학과 (호실관 4층)
- 7 등록방법(수강료: 200,000원)
* 직접 방문접수 또는 전화신청 후 수강자 명의로 입금
* 예금계좌: 광주은행 134-107-109843(예금주:광주대 평생교육원)
- 8 수료 후 특전: 수료증 수여(총장명인), 스피치지도사 자격증 수여, 각종선거연설문 피견, 각 기업체, 학원단체스피치, 발표력 강사 및 사회진행자 추천
- 9 담당교수: 한 상택
- 한국언변연설인문협회 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유세위원장
- 한국 정치 연수원 교수
- 대통령상 전국언변대회 및 전국스피치 기능경시대회 대회위원장
- 기초광역의원, 광역기초단체장, 국회의원후보 연설지도 및 연설문 작성(30년)
- 시민법인 한국언변협회 광주본부 회장
* 저서: 말하기 교본, 스피치 웅변 연설 리더십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TEL: 062) 670-2167, 2168
FAX: 062) 670-2475 HP: 010-5692-9998

부동산매각공고

◆ 대상부동산

위 치	여수시 중앙동
면 적	4,077㎡(1,233평)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이용현황	나대지(지상건축물이 없음)
지 목	대지
도 로	4차선대로 접
매각가격	57억

◆ 특 장 점

-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지 인근.
- 바다조망(돌산대교 등)이 가능한 해안가 도로변에 위치.
- 본 부지 주변 개발호재(엑스포)로 투자 가치 급상승 지역.
- 복합용도 개발가능.
- 파격적인 금액 가격!!!

문의 : 016-757-7700